

예능·드라마, 시골에 살어리랏다

농촌으로 눈길 돌린 방송가

tvN '삼시세끼' SBS '모던 파머' 등 도시생활 익숙한 연예인 적응기 담아 '농촌의 소중함 일깨우는 역할' 기대

'농촌에 살어리랏다!' TV가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발길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 KBS 2TV '1박2일'과 MBC '아빠! 어디가?' 등 주말 예능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을 여행하며 일상 속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지 오래. 최근 그 뒤를 잇는 프로그램들도 속속 농촌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SBS 예능프로그램 'एको 빌리지, 즐거운 가족'은 전원생활을 위해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스타들이 농촌에서 친환경 집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케이블채널 tvN 측도 '삼촌(村)로망스' '황금거탑' '농부가 사라졌다' 등 '농촌' 시리즈에 이어 '삼시세끼'를 새롭게 내놔다. 18일 첫 방송하는 SBS 주말드라마 '모던 파머'는 인기 아이돌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농촌 이야기를 펼친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히 그 출연진이 20~30대 톱스타를 위주로 구성된다. 젊어서 눈길을 모은다. 실제로 17일 방송을 시작하는 '삼시세끼'는 '꽃보다~' 시리즈의 이서진과 그룹 2PM의 옥택연이 출연하는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미국 유학과 출신인 두 사람이 시골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각박한 도시를 떠나 산 좋고 물 좋은 농촌으로 스타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서진과 연출자 나영석 PD, 남성그룹 2PM 옥택연(왼쪽부터)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채널 tvN '삼시세끼'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산골 생활의 매력을 공개하고 있다.

답아낸다. 연출자 나영석 PD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에 모든 걸 맞추고 살아가는 출연진의 모습을 통해 자연에서 얻는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SBS '모던 파머'도 비슷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4명의 록밴드 멤버가 빛에 쫓겨 귀농하는 이야기가 엮인다. 아이돌그룹 FT아

일랜드 이홍기, 걸그룹 AOA의 민아와 미스코리아 출신기자 이하니 등이 주연을 맡았다. 이들을 통해 농촌 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예정이다. 제작진은 "도시 생활에 지친 청춘이 웃을 수 있는 드라마"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귀농 및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인구는 5만6267명으로 2012년보다 18.9% 증가했다. 특히 40대 이하의 젊은층이 2010년 1841가구에서 2013년 1만2318가구로 6.7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TV프로그램이 소외되었던 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소리꾼' 장사익, 20주년 전국투어



'소리꾼' 장사익(사진)이 공연 20주년을 맞아 전국을 돌며 소리판을 펼친다.

장사익이 대표곡 '찹쌀떡'을 앞세워 30·31일 서울(세종문화회관)을 시작으로, 11월15일 울산(KBS홀), 11월21일 대구(계명아트센터), 12월4일 광주(광주문화예술회관), 12월12일 대전(충남대 정심화홀), 12월19일 부산(KB S홀), 12월25일 김해(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한다. 마흔다섯, 늦은 나이에 데뷔한 장사익은 대중가요, 재즈, 국악 등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음악세계를 펼쳐며 진솔한 삶의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노래를 한 지 꼭 20년이 됐다"면서 "노래를 부르며 사는 저의 삶은 진정 꿈 속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오신 사랑하는 모든 분과 행복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했다. 공연문의 02-396-0514.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odadi

이병헌 협박사건 오늘 첫 공판

이병헌 협박 사건의 첫 공판이 16일 열린다.

톱스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모 씨와 걸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가 이날 처음 법정에 선다.

이날 오전 11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은 양측이 "계획적 범행" "우발적"이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이병헌과 3개월 동안 만났고, 그만 만나자는 그의 말에 상처를 받고 협박했다"며 우발적 범죄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의 변호인 측은 15일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이 씨의 기존 주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이병헌은 공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주하 아내서 남편 강모씨, 폭행혐의로 집행유예

MBC 김주하(41) 아내서 남편 강모(43) 씨가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 아내의 귀를 때리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는 김주하 아내의 재산을 허락도 없이 조회하려고 한 혐의로도 추가됐다.

김상중, KBS1TV 대하사극 '징비록' 주연 캐스팅



배우 김상중(사진)이 KBS 1TV 대하사극 '징비록'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드라마는 류성룡이 집필한 '징비록'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극중 김상중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까지 맡고 정국을 총지휘하면서 이순신을 발탁한 류성룡을 연기한다. 방송은 내년 1월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그녀가 보고싶다”...스크린서 부활한故 최진실

“최진실이 가장 생각한다.”

고 최진실을 향한 추억이 스크린을 통해 살아나고 있다. 고인이 1990년 주연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연출한 이명세 감독은 24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동명의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최진실을 떠올리며 "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진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신민아·조정석 주연으로 8일 개봉한 가운데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키며 흥행을 이고 있다. 15일까지 누적 관객 95만명을 넘어서며 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 다가가고 있다. 로맨틱미디 장르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이다. 덕분에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리메이크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영화가 관객을 모으고 화제를 더할수록 원작의 주인공인 최진실을 향한 그리움은 더해지는 분위기다. 공교롭게도 영화 개봉과 최진실이 세상을 떠난 시기 역시 비슷하다. 최진실은 2008년 10월2일 세상을 등졌고, 영화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이달 8일 개봉했다.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최진실이 연에게에 막 데뷔하고 21살이 되던 해에 처음 주연한 영화다. 당시 광고에서 주목받던 신인인 그는 이 영화에서 신혼부부의 사랑과 갈등, 화해를 사랑스럽게 풀어내 스크린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마누라 죽이기' '고스트 맘마' '편지'에 이르기까지 1990년대 흥행작에서 활약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24년 만에 같은 인물을 연기해야 했던 신민아의 출연 결심과 연기 과정은 간단치 않았다. "최진실 선배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신민아는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시대에 맞는 인물을 표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신민아의 부담은 사실 원작 속 고인의 모습이 여전히 관객의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짜장면 그릇에 얼굴이 박히는 모습이나 노래하다 목소리가 갈라지는 등 원작 속 최진실이 남긴 명장면은 신민아를 통해 다시 부활했고, 전혀 다른 개성과 분위기로 새로운 매력을 뽐내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리 기자 hl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리메이크 '나의 사랑 나의 신부' 흥행 원작과 명장면 그대로...관객들 감명



고 최진실(왼쪽)이 1990년 주연한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24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 살아나면서 그를 추억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제공 | 심호필

최고의 절약연료 산림조합보급 신재생연료

나무연료 친환경 난방기

절약난방! 울겨울부터는 연료비 걱정마세요
절약되는 연료비로 제품 구입을 하고도 돈이 남습니다

기상청 예보!! 금년 겨울 극심한 한파 예측

하루 난방비 3500원 (10시간 기준/66㎡)

우드펠릿난로 무연통 원적외선 펠릿히터

우드펠릿연료

☑ 기름이 아님니다
☑ 전기가 아님니다
☑ 가스도 아님니다

교회, 상가, 식당, 가든, 펜션, 카페, 사무실, 병원, 약국, 화훼단지, 꽃농장

구입문의 주문전화 **070-8708-4590**

www.힐링난방.com **070-8708-4591**

강력한 파워!! 4륜 오토바이

효도선물 최고!

산길, 시골길, 자갈길, 진흙밭
백사, 일반농가, 어촌부둣가
공장, 건설현장, 과수원

상담전화 070-7841-3753 / 070-7841-3754

탁월한 제설 능력의 제설차

넘치는 파워로 눈을 치운다.
금년 많은 적설량 예보
눈도 치우고 짐도 싣고 거침없이 달린다.

전국 어디든 신속배송
확실한 출장A/S : www.hmts.co.kr